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NOTE

- 경제 이슈
 - IMF,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 2012년 경제성장률 3년래 최저
- 경영 노트
 - 2013 경영 트렌드
- 사회 트렌드
 - 합계출산율 1.30명 회복
 - 고소득층도 자살시도 급증
- 저널 브리프
 - 성공적인 사내 커뮤니케이션 사례
- 洗心錄
 - 잠시 멈추자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www.hri.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 IMF,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 IMF는 1월 23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5%로 이전보다 0.1%p 하향조정
 - 세계 경제 :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연으로 2013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 3.6%에서 3.5%로 하향조정
 - 선진국 경제 :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경기 침체 지속으로 2013년 1.4%로 2012년 10월 전망 대비 각각 0.1%p 하향조정. 미국은 2.0%, 독일은 0.6%로 각각 0.1%p, 0.3%p 하향조정
 - 신흥국 경제 : 선진국 경기부진의 여파로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10월 전망대비 0.1%p 하향조정된 5.5% 전망
- 유로존 위기 재 고조 및 미국 재정 감축 우려가 전망치 하향조정의 배경이 되었으나 향후 불안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2013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 기조를 나타낼 전망

□ 2012년 경제성장률 3년래 최저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대비 2.0% 성장하여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0.3%)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 소비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전년대비 1.8% 증가에 그침
 - 투자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1.8% 감소,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건설 경기 침체와 공공부문 투자 위축 등으로 전년대비 1.5% 감소
 - 대외거래 : 수출은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등은 선전하였으나 선박·무선통신기기 등의 부진으로 작년(9.5%)보다 위축된 3.7% 성장, 수입 역시 국제원자재가 하락 및 내수 위축 등으로 작년(6.5%)보다 감소한 2.3% 성장
- 향후 국내 경제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과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다소 개선되겠지만, 최근 원화의 가파른 절상과 가계부채 문제, 유럽 경제위기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

□ 2013 경영 트렌드1)

■ 2013년 기업 경영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어는 ‘위기’와 ‘극복’ 그리고 ‘생존’으로 요약

- 기업들은 유럽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구사할 전망

< 2013 경영 트렌드 >

	내 용
빅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란 기존 기술로는 분석,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의미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대중화되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다양한 IT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는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 개막 • 기업은 소비자의 소비패턴 분석에 빅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상품 개발을 할 수 있고, 범죄 수사에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유형 등을 분석해 범죄 예방에 활용
시나리오 플래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플래닝은 불확실한 요인별로 그 변동폭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각 요인들의 유기적인 결합에 따라 시나리오를 만들어 미래에 대응하는 방식 • 과거의 추세적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예상하는 방식은 불확실성의 증대로 무용지물이 되었고 앞으로 있을 다양한 상황을 상정, 여러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할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생존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비용절감에 나서는 수준을 넘어 주력인 알짜 계열사까지 매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 • STX는 그룹의 양대 축인 조선과 해운을 모두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STX 팬오션을 매각하고 조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 • 현대중공업은 이미 임원의 10%를 줄였으며, 포스코와 CJ그룹은 중복되는 사업들을 조정해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
통섭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구로 창조적 기업경영 활동 중에서 통섭(統攝)의 중요성이 부각 • 통섭은 원래 물리·화학적 결합을 넘어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생물학적 합침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 동양과 서양문화의 접목, 정보기술과 철학의 융합 등 다양한 의미로 파생 • 삼성전자는 애플과 같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조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선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고, 포스코 역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조화된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윤리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은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윤리경영을 기업의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보다는 좋은 활동을 하는 기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1) ‘2013 경제·경영 트렌드’(이코노미조선, 2013년 1월)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 **합계출산율 1.30명 회복²⁾**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년 만에 1.30명 선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 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 이후 11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1.30명 수준을 회복해 우리나라가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0명 이하) 국가에서 벗어날 전망
 -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로, 2.1명 이상이어야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0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5년 1.08명 수준까지 떨어졌고, 2006~2011년에도 1.12~1.25명 사이를 맴돌고 있음**
 - 이런 상승세가 유지돼 2045년 합계출산율이 1.79명에 도달한다면 2030년으로 추정됐던 총인구 감소시점이 2041년으로 11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
 - 또 4400만 명으로 추정됐던 2060년 총 인구수는 55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도 기존(2200만 명)보다 500만 명이 많은 2700만 명을 기록하게 됨

□ **고소득층도 자살시도 급증³⁾**

-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부유층의 자살 시도가 최근 3년 새 40% 가까이 급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소득계층의 자살시도 건수는 2011년 기준 407건으로, 2008년 293건에 비해 3년 새 38.9%나 증가(2009년 320건, 2010년 357건)
 - 반면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계층의 자살시도 건수는 2008년부터 꾸준히 500~600건대를 유지하다 2011년 379건으로 오히려 급감했음
- **이에 따라 201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자살시도 건수(407건)가 하위 10%의 자살시도 건수(379건)보다 7.4%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고소득층의 자살시도 증가는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업무 성과 등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2) '합계출산율 1.30명 회복'(문화일보, 2013.1.25)을 요약 정리함

3) '소득 상위 10% 자살시도 급증'(문화일보, 2013.1.25)을 요약 정리함

□ 성공적인 사내 커뮤니케이션 사례4)

- 기업들은 사내 소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활용
 - 정보 게시 : 게시판, 사내방송, 사보, 포스터, 회사 인트라넷
 - 면대면 미팅 : 포커스그룹, 팀미팅, 회사단체행사
 - 메시지 발송 :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내메신저
 - 가상회의 : 오디오·비디오 컨퍼런스, 위성 미팅
 - 최고경영자 커뮤니케이션 : CEO월별레터, CEO원탁회의
-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우수 사례 소개
 - ① 오피스디포(Office Depot) :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 타운홀 미팅은 정책 결정권자나 선거 입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정책이나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회의를 의미
 - 사무용품 기업 오피스디포는 매 분기마다 전 직원들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CEO가 직접 경영 현황을 설명하고 모든 임원이 참석하는 패널 토의를 시행
 -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직원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해 직원들의 실행력 및 주인의식을 고취시킴
 - ② 힐티(Hilti) : 콕피트 차트(Cockpit Chart)
 - 비행기 조종석을 뜻하는 콕피트는 비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곳
 - 전동 공구 기업인 힐티는 전사 및 부서별 콕피트 차트를 통해 회사 전체 사업 정보 및 부서별 현황 등을 게시
 - 직원들은 콕피트 차트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회사의 경영 정보에 대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 ③ 스타벅스(Starbucks) : 스킵레벨 미팅(Skip-Level Meeting)
 - 스킵레벨 미팅이란 상사를 배제하고 사원들이 그룹을 지어 CEO와 직접 만나 자유로이 토론하는 미팅을 의미
 - 스타벅스 CEO는 매장 방문 시 해당 매장의 매니저를 제외한 직원들과 스킵레벨 미팅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
 - 직원들은 계층에 따른 제약 없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그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높은 실행력을 보임

4)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내 커뮤니케이션'(한경비즈니스, 2013.01.18) 참조

□ 잠시 멈추자

체온 저하는 우리 몸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한다. 체온을 재보면 36.5도를 밑도는 사람이 더러 있다. 이시하라 유미의 「체온 혁명」이라는 책에는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은 30 몇 퍼센트나 증가한다. 거꾸로 체온이 저하하면 면역력은 떨어진다.”고 했다. 또한 현대인들은 많이 먹어서 문제다.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시간이 되어서 음식을 먹는다. 이시하라 유미의 또 다른 저서인 「몸이 원하는 장수요법」에서는,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면 세 끼를 모두 챙겨 먹는 것 자체가 과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상 체온 대비 체온 저하 혹은 과도한 식사 등은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시간을 내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낸스 길마틴의 「당신, 잠시 멈춰도 괜찮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끊임없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는 ‘멈춤’이 없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선택과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나 고객을 돌아볼 수 있고,
주변의 도전과 기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힐링’이라는 단어도 멈춤과 관련이 있다. 잠시 멈추고 나의 육체적 및 정신적 과소 혹은 과열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열심히 달려야만 하는 줄로 생각했던 것 같다. 잠시라도 멈추면 사회에서 낙오되어 큰 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영원히 멈추지 않고 달릴 수는 없다. 잠시 쉬면서 열기도 식힌다면 더 멀리 더 편안하게 인생의 거리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방향이 없는 게 진짜 문제일 경우에도
흔히 시간이 없다고 불평한다.”

- 지그 지글러 : 미국의 성공 철학자